

건설동향

BRIEF_{ing}

• WEF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 2026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세계는 거대한 구조적 전환의 임계점인 벼랑 끝 위치
- 단기(2년) 리스크 요인 1위는 지경학적 대립, 장기(10년) 극심한 기상이변이 1위
- 단기 리스크에는 충격 흡수 전략이 장기 리스크에는 구조 전환 전략 필요

• 원유 가격 상승이 건설 생산비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건설업계 파급 우려
- 수입 원유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건설 생산비용 파급효과 분석
- 불확실성 장기화에 따른 건설경기 회복 지연 막기 위한 맞춤형 대책 필요

• 연구원 소식

- [건설 재탄생 2.0] ⁰¹주택, 도시 재탄생 전략, 세미나(3.18) 개최



WEF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 2026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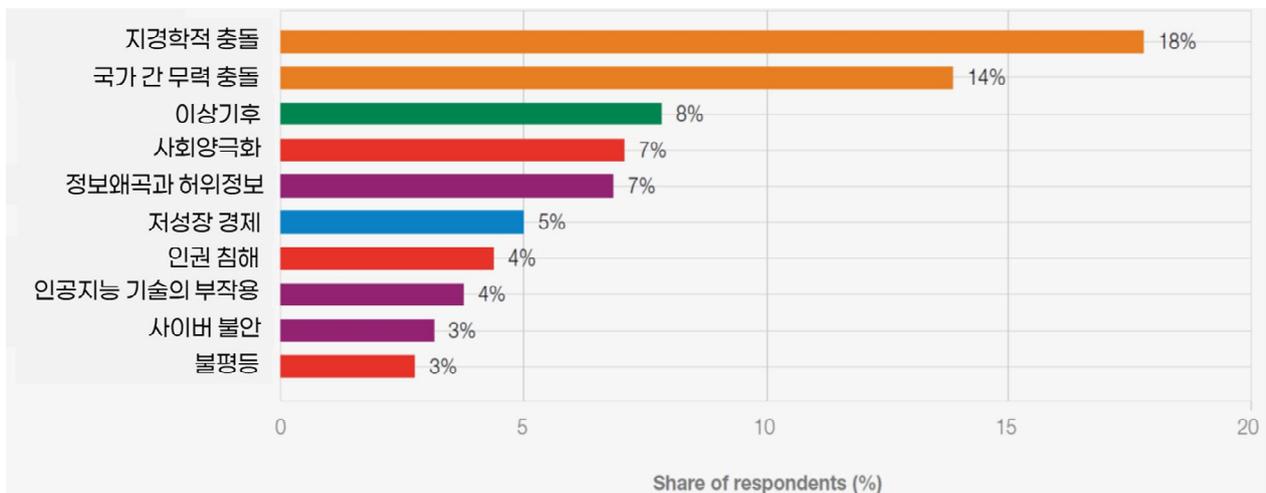
- 초불확실성의 시대, 단기적 생존 전략과 장기적 경쟁 우위 전략 필요 -

손태홍(건설기술·관리연구실장 · thsohn@cerik.re.kr)

2026년 현재, 세계는 단순한 위기 반복을 넘어 무역·금융·기술이 영향력 행사 수단이 되는 거대한 구조적 전환의 임계점인 벼랑(Precipice) 끝에 위치

- 지난 수년간 세계는 ‘복합 위기(Polycrisis)’라는 이름 아래 여러 리스크의 동시다발적 분출을 목격해 왔으나, 이제 패러다임은 ‘새로운 경쟁 질서(New Competitive Order)’로 완전히 이행됨. 물리적(군사적) 전쟁이 야기한 혼란과 더불어 전략적 우위를 위한 ‘경제적 무기’의 동원이 계속되면서 사회는 더욱 분열되고 있음.
- 전체 응답자의 약 3분의 1(18%)이 2026년의 ‘최대 리스크’로 지경학적 대립을 선택했으며, 국가 간 무력 분쟁(14%)은 2위를 차지함. 지경학적 충돌은 지난해 대비 두 단계 상승해 1위 리스크가 되었고, 2025년 1위였던 국가 간 무력 분쟁은 2위로 한 단계 하락함.
- 2026년에는 기술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증가했는데, 정보 왜곡과 허위 정보가 5위(7%)에 올랐고, AI 기술의 부작용이 8위(4%), 사이버 불안(사이버 보안 취약)이 9위(3%)로 새롭게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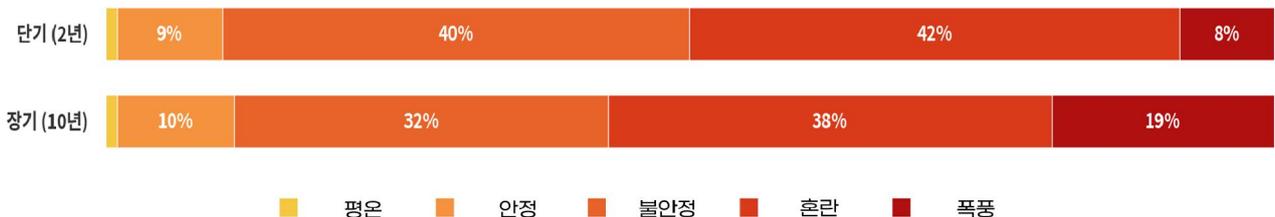
〈그림 1〉 현재 시점의 글로벌 리스크 순위(%)



1) World Economic Forum(2026), “The Global Risks Report 2026 21st Edition”의 주요 내용을 요약함.

- 1,300여 명의 인식 조사 결과, 향후 10년에 대해 평온한 미래를 예상하는 응답자는 단 1%에 불과하며, 전체 응답자의 57%가 '혼란(Turbulent)' 또는 '폭풍(Stormy)'이 몰아치는 미래를 예견함.
 - 2026년 글로벌 리스크 전망을 규정하는 핵심 주제는 불확실성으로, 응답자들은 단기(2년)와 장기(10년) 전망 모두를 부정적으로 예측함. 특히, 향후 2년에 대해 응답자의 50%가 전망을 '혼란(Turbulent)' 또는 '폭풍(Stormy)'으로 예상했으며, 이러한 비율은 향후 10년 전망에서는 57%로 악화됨.
 - 더불어, 각각 40%(2년)와 32%(10년)는 글로벌 전망을 '불안정(Unsettled)'으로 예측했으며, '평온(Calm)' 전망을 예상한 응답자는 1%에 불과함.
 - 글로벌 리스크가 규모·상호연결성·발생 속도 측면에서 계속 확대·가속되는 가운데, 2026년은 '경쟁의 시대'를 의미함. 각국의 정부들이 다자 틀에서 벗어나고 협력 메커니즘이 붕괴하면서, 안정성은 포위되고 있음. 즉, 협력보다 대립이 부상하는 경쟁적 다극 체제가 형성되고 있으며, 협력의 통화라 할 수 있는 신뢰의 가치는 과거 어느 때보다 낮은 수준임.
 - 올해 조사 결과는 지난해보다 단기 우려가 더 커졌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향후 2년 전망을 '혼란 또는 폭풍'으로 선택한 응답자 비율이 14%p 증가했음. 반면에, 지난해와 비교하면, 향후 10년 전망에서 위 두 범주에 해당하는 응답 비율은 5%p 개선되어(지난해 62% → 올해 57%), '평온 또는 안정(Calm or Stable)' 전망을 선택한 응답자 비율은 3%p 증가했고, '불안정(Unsettled)' 전망을 선택한 비율도 2%p 증가했음.

〈그림 2〉 단기(2년) 및 장기(10년) 글로벌 전망



단기(2년) 리스크 요인 1위는 지경학적 대립, 장기(10년) 리스크 요인은 극심한 기상이변이 1위 차지

- 2024년 14위, 지난해 조사 9위였던 지경학적 충돌(Geo-economic Confrontation)은 이번 조사에는 8단계 상승한 1위로 평가됨.
 - 경쟁 심화, 불안정한 공급망, 그리고 역대 확산 위험을 안고 장기화되는 분쟁은 신뢰가 약화된 세계에서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글로벌 파급효과를 동반하면서 국가 취약성을 심화시킴. 글로벌 리스크 지형에서 지경학적 대립이 차지하는 심각성으로 인해 2028년까지 최우선 리스크로 평가됨.
 - 2023년 이후 단기 리스크 요인 중 1위를 차지했던 잘못된 정보와 허위 정보(Misinformation and

Disinformation) 요인은 이번 조사에는 2위로 하락함. 국가의 정치·문화·정체성 축을 따라 심화되는分野는 잘못된 정보와 허위 정보와 같은 기술 리스크에 의해 더욱 증폭되고 있음을 의미함. 또한, 공적 담론을 훼손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약화시키며, AI와 같은 기술 발전에 의해 확산할 가능성이 높음.

- 작년 조사에서 4위였던 사회적 양극화(Societal Polarization)는 1계단 올라 3위를 기록했는데, 사회적 리스크 전체의 순위는 전반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음. 불평등(Inequality, 7위), 인권 및/또는 시민적 자유의 침식(Erosion of Human Rights and/or Civic Freedoms 8위), 경제적 기회 부족 또는 실업(Lack of Economic Opportunity or Unemployment, 13위), 공공 인프라 및 사회적 보호의 부족(Insufficient Public Infrastructure and societal protections, 20위), 감염병(Infectious Diseases, 27위)은 모두 작년과 유사한 순위를 기록함.
- 향후 2년 동안의 상위 10대 리스크 중 환경 리스크인 극한 기상(Extreme Weather Events)과 오염(Pollution)이 4위와 9위를 기록했지만, 단기적으로는 응답자들이 글로벌 리스크의 우선순위를 지경학적 충격과 사회적 충격 쪽으로 중요성을 조정함. 환경 리스크는 순위 하락 폭이 큰 편인데, 오염(Pollution)은 3계단 하락한 9위, 지구 시스템의 중대한 변화(Critical Change to Earth Systems)는 7계단 하락해 24위, 생물 다양성 손실 및 생태계 붕괴(Biodiversity Loss and Ecosystem Collapse)는 5계단 하락해 26위를 기록함.

● 장기(10년) 전망에서는 극한 기상(Extreme Weather Events)가 최우선 리스크 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위 10대 리스크 중 절반이 환경 리스크로 구성됨.

- 2년 전망에서는 환경 리스크들의 순위가 상대적으로 내려갔던 것과 달리, 환경 리스크는 그 존립적 성격 때문에 향후 10년(장기)에서는 응답자 전반에 걸쳐 최우선 리스크로 유지되고 있음. 생물 다양성 손실 및 생태계 붕괴(Biodiversity Loss and Ecosystem Collapse)는 2위, 그 뒤를 지구 시스템의 중대한 변화(Critical Change to Earth Systems)가 3위로 지난해 조사와 동일한 순위를 기록함. 반면에, 자연자원 부족(Natural resource shortages)은 지난해보다 2계단 하락해 6위, 오염(Pollution)은 10위를 기록함.
- 기술 리스크 역시 향후 10년 동안 심각도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잘못된 정보·허위정보와 AI 기술의 부정적 결과는 올해 순위에서 지난해 대비 각각 1계단 상승하여 4위와 5위를 기록함. 향후 10년 동안 AI와 양자(퀀텀) 기술의 진전은 지경학적 대립이 심화되는 맥락에서 그 파급효과가 확대될 수 있는 상황임. AI 기술을 포함하는 첨단 기술의 부정적 결과(Adverse Outcomes of Frontier Technologies)는 2년 전망에서 10년 전망으로 갈수록 심각도(Severity) 점수가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리스크임.
- 사회적 리스크는 모든 시간대에 걸쳐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장기(10년) 리스크 순위에서는 불평등(Inequality)이 7위, 사회적 양극화(Societal Polarization)가 9위를 기록함. 대부분의 글로벌 리스크가 향후 10년 동안 악화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심각도 점수가 개선될 것으로 본 리스크는 지경학적 충돌(Geoeconomic Confrontation)임. 이는 세계의 지경학적 전망 질문에서 향후 10년보다 향후 2년에 대한 응답이 약간 더 부정적으로 치우쳐 있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향후 10년 동안 계속 악화할 것으로까지는 예상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함.

- 10년 전망에서 경제 리스크는 상위 10대 순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로 리스크 순위의 하위권에 위치하지만, 경제 리스크 전반의 심각도는 상승하는 흐름을 보임. 전략적 자원 및 기술의 집중(Concentration of Strategic Resources and Technologies, 11위)과 핵심 인프라의 교란(Disruptions to Critical Infrastructure, 23위)은 지난해 대비 각각 2계단 상승함. 부채(Debt, 17위), 자산 버블 붕괴(Asset Bubble Burst, 27위), 경기침체(Economic Downturn, 24위)는 각각 3계단 상승함.

〈그림 3〉 단기(2년) 및 장기(10년)별 글로벌 10대 리스크 요인

순위	단기(2년)	장기(10년)	순위	단기(2년)	장기(10년)
1	Geo-economics confrontation	Extreme weather events	6	Cyber insecurity	Natural resources shortages
2	Misinformation and disinformation	Biodiversity loss and ecosystem collapse	7	Inequality	Inequality
3	Societal polarization	Critical change to Earth systems	8	Erosion of human rights and/or of civic freedoms	Cyber insecurity
4	Extreme weather events	Misinformation and disinformation	9	Pollution	Societal polarization
5	State-based armed conflict	Adverse outcomes of AI technologies	10	Involuntary migration or displacement	Pollution

경제

환경

지정학

사회

기술

❖ 단기 리스크에는 충격 흡수(Resilience) 전략이 장기 리스크에는 구조 전환(Transformation) 전략 필요

- 건설산업은 ‘초불확실성의 시대’를 관통하고 있으며, 기업은 단기적 생존을 위한 회복탄력성 확보와 장기적 경쟁 우위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이원적(Dual-Track) 전략 수립 필요
 - 단기적으로 건설기업은 지정학적(Geo-Economic) 갈등이 초래하는 공급망의 불연속성과 금융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경영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함. 국가 간 대립으로 인한 관세 인상과 핵심 자원의 무기화는 건설산업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기업의 수익 구조의 위협요인임. 이에 기업은 사후적 대응에서 벗어나 공급망 전 과정에 대한 가시성을 실시간으로 확보하고, 조달처의 전략적 다변화를 통해 외부 충격에 즉각 반응할 수 있는 ‘민첩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함.
 - 장기적 관점의 경영 전략은 기후 위기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고 기술적 도약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되어야 함. 기상 이변과 지구 시스템의 변화는 인프라의 자산 가치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임을 고려해 기후 적응형 설계(Climate-Adaptive Design)를 내재화하여 인프라의 생애주기 비용을 최적화하고 장기적인 유지관리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제거해야 함. 동시에 인공지능(AI)과 로봇틱스 기반의 자동화 기술을 현장 전반에 도입함으로써, 고착화된 생산성 정체와 인력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디지털 스마트 건설 플랫폼’으로의 체질 개선에 집중해야 함.



원유 가격 상승이 건설 생산비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토목공사 및 경유·레미콘 등에 영향 집중될 전망,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단가 관리 및 지원책 필요 -

박철한(연구위원 · igata99@cerik.re.kr)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건설업계 파급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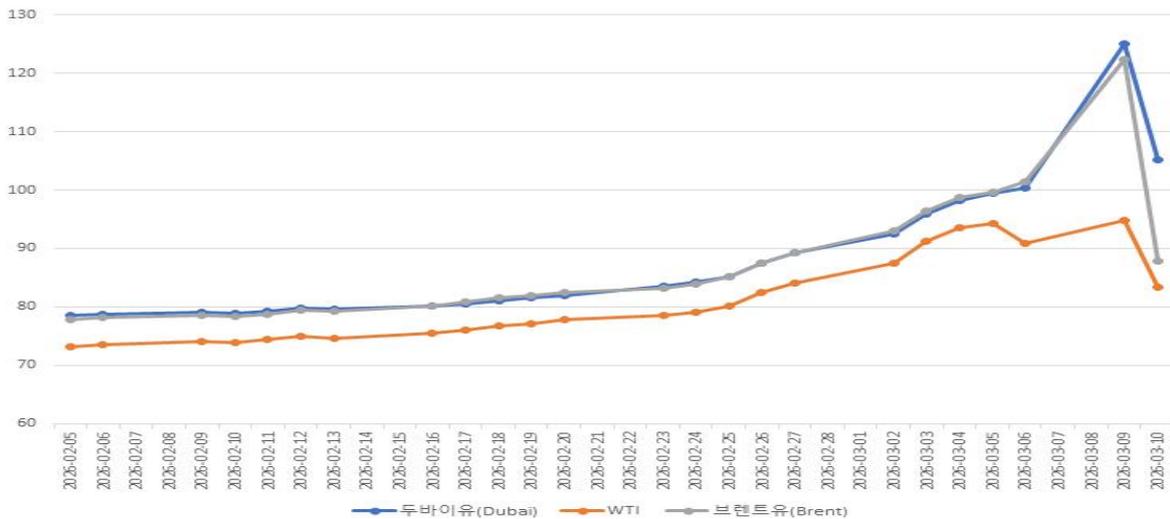
● 이스라엘·미국 대 이란 분쟁 격화로 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

-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변지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등 에너지 수급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수입 원유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 의존²⁾하고 있어, 유가상승이 국내 산업 전반의 물가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우려가 큼.

● 유가 급등이 건설 생산비용에 미치는 선제적이고 객관적인 점검 필요

- 건설산업은 장비 가동과 자재 운송 등에 유류 소비가 많고, 석유화학 기반 자재 사용 비중이 높아 유가상승에 취약함. 이에 따라 원유 가격 상승이 국내 건설 생산비용에 미칠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함.

〈그림 1〉 배럴당 국제 유가(\$) 추이



주 : 배럴당 유가(\$) 추이임.

자료 :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Petronet) 및 오피넷(Opinet) 일일 국제유가 공시 자료.

2) 국내 원유 수입의 70%가 중동에서 수입함.

수입 원유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건설 생산비용 파급효과 분석

- 본 분석은 2023년도 산업연관표(2020년 연장표, 생산자가격 기본부문 표)에 ‘가격파급효과 분석 모형’을 적용하여 추계함.
 - 가격파급효과 분석 모형은 통상의 물량파급효과 분석 모형과 달리 부가가치 항목 또는 투입된 원재료의 가격 변동을 독립변수로 하여 그것이 각 산업 부분의 생산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접근법임.
 - 원유가 100% 수입품이기 때문에 수입 상품 가격변동의 물가파급효과 모형을 적용
 - 본 모형에서는 원유 가격의 산업 부문별 파급효과를 분석하려 하므로 $\dot{P}^d = (I - A^{d'})^{-1} A^{m'} \dot{P}^m$ 에 원유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을 0으로 처리한 \dot{P}^m 값을 곱하여 추정함.

〈표 1〉 수입 원자재 가격 변동의 파급효과 분석 모형

$$\dot{P}^d = (I - A^{d'})^{-1} A^{m'} \dot{P}^m$$

\dot{P}^d : 국산품 가격의 변동을 벡터 $A^{d'}$: 국산품 물량투입계수의 전치행렬
 $A^{m'}$: 수입품 물량투입계수의 전치행렬 \dot{P}^m : 수입품 가격변동을 벡터

유가 상승에 따른 건설 생산비용 파급효과 분석 결과, 건축보다는 토목공사에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분석

- 유가 50% 상승 시 건설 생산비용 1% 초과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
 - 유가가 10% 상승할 경우 전체 건설 생산비용은 0.21% 상승하며, 50% 급등 시에는 1.06%, 60% 급등 시에는 1.27%까지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건축 대비 토목공사(도로시설 등)의 타격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
 - 토목 건설의 경우 세부적으로 도로시설 공사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음(유가 10% 상승 시 0.59%, 50% 상승 시 2.93% 상승). 이어 도시토목, 하천사방, 항만 및 농림수산토목 순으로 비용 상승 폭이 큰 것으로 분석됨.
 - 건축물 공사의 경우 주거용 건물의 경우 유가 10% 상승 시 0.18%, 60% 상승 시 1.08%의 비용 상승효과가 발생해 상대적으로 토목보다는 파급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2〉 유가상승으로 인한 건설 생산비용 파급효과 분석 결과

(단위 : %)

구분		유가	유가	유가	유가	유가	유가
		10%상승시	20%상승시	30%상승시	40%상승시	50%상승시	60%상승시
건축물	주거용 건물	0.18%	0.36%	0.54%	0.72%	0.90%	1.08%
	비주거용 건물	0.16%	0.32%	0.48%	0.64%	0.80%	0.97%
	건축보수	0.19%	0.37%	0.56%	0.74%	0.93%	1.12%
토목건설	도로시설	0.59%	1.17%	1.76%	2.35%	2.93%	3.52%
	철도시설	0.25%	0.51%	0.76%	1.02%	1.27%	1.53%
	항만시설	0.41%	0.81%	1.22%	1.62%	2.03%	2.44%
	하천사방	0.44%	0.88%	1.31%	1.75%	2.19%	2.63%
	상하수도시설	0.19%	0.37%	0.56%	0.74%	0.93%	1.11%
	농림수산토목	0.41%	0.81%	1.22%	1.62%	2.03%	2.44%
	도시토목	0.55%	1.10%	1.66%	2.21%	2.76%	3.31%
산업시설 건설	환경정화시설	0.09%	0.18%	0.27%	0.37%	0.46%	0.55%
	발전소 시설	0.12%	0.23%	0.35%	0.46%	0.58%	0.69%
	산업플랜트	0.09%	0.18%	0.27%	0.37%	0.46%	0.55%
	기타 건설	0.22%	0.43%	0.65%	0.86%	1.08%	1.29%
전체 건설		0.21%	0.42%	0.64%	0.85%	1.06%	1.27%

주 : 한국은행 2023년 산업연관표(2020년 연장표) 생산자가격 기본부문 표를 기준으로 분석함.

건설투입 요소 중 경유, 레미콘, 아스콘 순으로 파급력이 집중

● 건설투입 요소 중 경유, 레미콘, 아스콘 순으로 건설 생산비용 상승 견인

- 전체 380개 기본부문 중 유가 10% 상승 시 투입 영향이 큰 요소를 분석한 결과, 경유로 인한 영향이 전체 파급효과의 35.2%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높음.
- 이어 레미콘(8.5%), 아스콘 및 아스팔트제품(8.4%), 도로화물운송서비스(4.2%) 순으로 생산비용 상승을 견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 경유, 레미콘, 아스콘 순으로 파급력이 높은 원인은 건설업 특유의 높은 장비·물류 의존도와 후방산업 연관성 때문임.

● 경유의 가격 파급효과가 가장 높은 이유는, 경유가 건설 현장 중장비의 핵심 연료로 직접 사용될 뿐만 아니라 레미콘·아스콘 등 주요 건설자재 생산 과정 전반에도 필수적으로 투입되기 때문

- 첫째, 건설기계 및 중장비의 절대적인 경유 의존도 때문으로 현장의 핵심 동력원인 건설기계(굴착기, 크레인, 지게차, 불도저 등)의 90% 이상이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어 유가 상승 시 즉각적인 비용 증가로 이어짐.

- 둘째, 육상 중심의 건설자재 운송 구조 때문으로 시멘트, 철근, 골재 등 건설자재는 중량과 부피가 커 대형 화물차량을 통한 육상 운송에 전적으로 의존함. 분석표에서 '도로화물운송서비스(4.2%)'가 파급효과 4위를 차지한 것 역시 건설 물류의 높은 경유 의존도를 방증함.
- 셋째, 후방산업의 연쇄 파급효과 때문으로 경유는 레미콘과 아스콘의 원재료 채취, 가공, 그리고 특수 차량을 통한 운반 공정 전반에 걸쳐 필수적으로 투입되므로, 주요 자재의 단가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연쇄 파급효과가 매우 큼.

〈표 3〉 원유 가격 10% 상승시 건설생산 세부 요소 파급력 분석 결과

(단위 : 금액, %)

순위	구분	유가10%상승 투입계수(%)	건설투입액 (조원)	파급액 (십억원)	전체 생산에서 비중(%)	파급 효과의 비중(%P)
1	경유	6.66	3.83	255.55	0.075	35.2
2	레미콘	0.43	14.30	61.70	0.018	8.5
3	아스콘 및 아스팔트제품	2.57	2.36	60.65	0.018	8.4
4	도로화물운송서비스	1.28	2.35	30.14	0.009	4.2
5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0.23	12.33	28.23	0.008	3.9
6	기타 석유정제제품	5.45	0.50	26.98	0.008	3.7
7	건축용 플라스틱제품	0.42	5.97	25.20	0.007	3.5
8	콘크리트 제품	0.31	7.05	21.96	0.006	3.0
9	건축용 금속제품	0.10	17.33	16.83	0.005	2.3
10	도료	0.85	1.98	16.70	0.005	2.3
11	철근 및 봉강	0.14	10.77	15.52	0.005	2.1
12	기타 플라스틱제품	0.34	2.31	7.79	0.002	1.1
13	플라스틱 1차제품	0.49	1.52	7.50	0.002	1.0
14	건축·토목 관련 서비스	0.03	23.49	6.99	0.002	1.0
15	시장조사 및 경영지원서비스	0.30	2.35	6.96	0.002	1.0
16	구조물용 금속제품	0.12	5.78	6.79	0.002	0.9
17	등유	5.53	0.12	6.77	0.002	0.9
18	산업용 운반기계	0.13	4.36	5.75	0.002	0.8
19	철강관	0.10	5.39	5.65	0.002	0.8
20	액화석유가스	6.19	0.09	5.59	0.002	0.8
1~20위 합산			124.19	619.26	0.181	85.4
그외 중간투입(21~380위)			75.07	105.86	0.031	14.6
전체 건설투입(파용자보수 등 합산)			342.24	725.12	0.212	100.0

주 : 한국은행 2023년 산업연관표(2020년 연장표) 생산자가격 기본부문 표를 기준으로 분석, 유가 10% 상승 파급력을 비교 분석.

건설경기가 침체한 상황으로 단기 충격은 한정적일 수 있으나, 불확실성 장기화에 따른 건설경기 회복 지연을 막기 위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

- **과거 대비 단기적인 공사비 급등 압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이번 사태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만큼 주택 및 건설 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가격 충격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관측됨.
 - 지난해 누적 주택 착공물량은 총 27만 3,000가구로 러·우 전쟁이 발발한 2022년(38만 6,000가구) 대비 약 11만 가구 감소했으며, 2025년 건설투자 역시 9.5% 감소한 상황임.
 - 이 같은 건설경기 침체로 철강과 시멘트 등 주요 자재의 재고 물량으로, 수급 불균형이 극심했던 과거와 달리 단기적으로 공사비 상승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다만, 유가 급등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파급력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고, 건설경기 회복 지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지난해 부진했던 수주와 착공 등 건설지표가 올해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중동발 시장 불확실성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원가 상승 불안감으로 인해 본 PF 전환이나 착공을 앞둔 사업장들이 일정을 미루게 되어 결국 전체적인 건설경기 회복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

- **유가 급등 상황 장기화를 대비해 맞춤형 단가 관리 대책 필요하며, 지원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파급력 핵심 자재(경유·아스콘) 중심의 수급 및 단가 관리가 필요한데, 생산비용 상승의 약 52%가 경유, 레미콘, 아스콘 3대 요소에 집중되어 있기에 정부와 업계는 해당 자재의 매점매석 감시, 대체 공급망 확보 등 수급 안정화 대책을 우선적으로 가동할 필요가 있음.
 - 건설기계 및 화물운송 업계 지원책을 연계할 필요가 있는데 유류비 지출 비중이 큰 건설기계 대여업 및 도로화물운송서비스(파급효과 4위)의 타격이 공사 중단 등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보조금 지급 대상을 한시적으로 영업용 덤프/믹서뿐만 아니라, 국가 인프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주요 건설기계 전반으로 확대 적용이 가능할지 검토가 필요함.³⁾
 - 타격이 큰 토목 현장 중심의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ESC) 지침 등의 선제적으로 검토가 필요한데,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주요 발주기관은 토목 사업장 중심의 총사업비 변경 및 예비비 재원을 미리 확보해 두고, ESC 신청 시 행정 검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자금 집행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3) '유가연동보조금'은 영업용(노란색 번호판) 차량에 한정해 경유 시장 가격이 정부가 설정한 '기준 가격(ℓ당 1,7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일정 비율(통상 50%)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해 주는 제도임.

건설 재탄생 2.0

주택·도시, 재탄생(Rebirth) 전략 - 구조 혁신을 넘어 정책·시장 재정립으로 -

일시 : 2026년 3월 18일(수) 14시
장소 :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건설 재탄생 2.0] 담론을 넘어, 실질적 구조 전환과 실행의 시대로

가치 회복 · 규제혁신 · 생산 개혁, 건설산업의 근본적 해법 모색

시리즈 세미나 ①

주택공급과 도시 준비의 패러다임 전환
시장과 정책의 구조적 혁신을 위한 전략 제시

프로그램(안)

시간	내용	비고
14:00 ~ 14:15	개회사	이종재 원장
14:15 ~ 14:45	기초발제 현 정부의 주택 정책 방향	장우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14:45 ~ 15:15	1주제 주택·도시 정책의 구조적 진단과 대전환 방향	허윤경 연구위원
15:15 ~ 15:45	2주제 착공을 만드는 공급, 거주를 만드는 정책 : 주택정책 패러다임 대전환	김성환 연구위원
15:45 ~ 16:15	3주제 주택 준비에서 도시 경쟁력으로 : 도시정비정책 패러다임 대전환	이태희 연구위원

시리즈 세미나 ②

지속가능한 산업혁신과 AI 대전환
2026년 4월 7일(화) 14시 /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2층 CG 아트홀

CERIK